



가톨릭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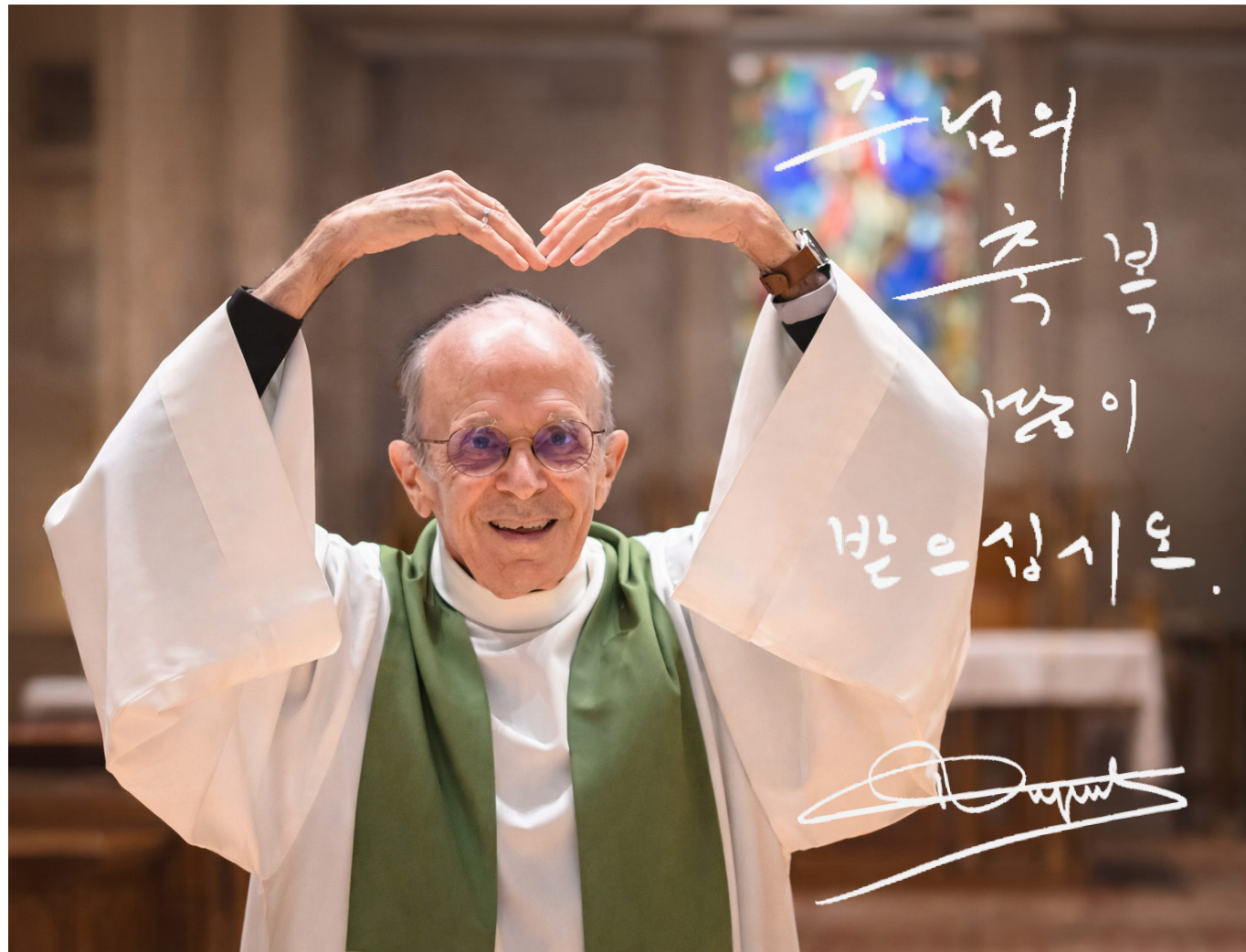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니다.”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개회 기원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제380호 2026년 4월 12일(가해)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두봉 레나도 주교(1929.9.2 ~ 2025.4.10) 선종 1주기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제1독서 사도행전 2,42-47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베드로 1서 1,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상처받은 신앙

북면 본당
김진조 베드로 신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제자, 토마스를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의심 많은 토마스라고 부르며 믿음이 부족한 제자로 기억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할 때 그는 차갑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의 이 의심스러운 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인가요? 체코의 신학자 토마시 할리크 신부는 그의 저서 『상처받은 신앙』에서 토마스의 의심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할리크는 ‘의심은 신앙을 깊게 만드는 정직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음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못 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왜 끔찍한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할리크 신부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고통의 흔적을 싹 지운 채 나타나셨다면 환상이나 유령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겪으신 고통과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나타나심으로써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고통받았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토마스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그 상처를 직접 만져 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토마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고백은 머리로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가슴으로 터져 나온 고백이기에 가장

위대한 신앙고백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바로 상처 안에서 만납니다. 나의 상처와 이웃의 상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나는 상처 없는 삶, 고통 없는 신앙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나의 상처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의 상처 속에 함께 계십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었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듯이 우리도 자신의 상처와 이웃의 상처가 있는 곳에 손을 뻗어 어루만져 줄 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제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주변에 상처 입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돌보아주세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손을 넣어 확인해야 할 ‘주님의 옆구리’입니다.

참된 신앙은 의심의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과 함께 상처를 껴안고 인내하면서 상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냅니다. 그분의 자비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처를 입은 주님께서 ‘나도 상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른요, 보시더!

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 사실이 자꾸 마음 쓰일 때,
움츠러들거나 갑자기 충격적인 병이 찾아왔을 때, 아프거나 늙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괴로운 순간에, 자신을 주체할 힘을 잃어 저를 지으신 알 수 없는 위대한 분의
손에 완전히 맡겨야 할 때, 오, 하느님! 그 모든 어둠의 순간에,
존재의 울을 풀어 헤치는 분이 당신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피에르 떼이아르 드 샤프레)

고맙게, 고맙게. 땃땃하게, 땃땃하게. 그리고 기쁘게!

주교좌 목성동 성당 이진구 시몬(제2대 안동문화회관 회장)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거처를 옮기신 두봉 주교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주교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였기에, 저희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그제, 마지막이 되어 버린 주교님과 만났을 저는 두근두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말씀은 없으셨지만, 저는 주교님의 뜻을 분명히 그리고 포켓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었을 때, 주교님께서 잠시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시며 격한 표정과 몸짓으로 무엇인가를 전하려 애쓰셨고, 눈짓으로 뜻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견디시면 곧 편해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교님께서 손과 몸을 움직이시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듯 밝은 표정과 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 보니 그것이 저와 나누신 마지막 이별 인사였고, 마음을 다해 건네신 덕담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교님께서 마흔을 갓 넘긴 젊은 사제로서 한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강한 경북,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안동 지역으로 소임을 받아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막 서클에 들어선 젊은이였고, 마치 천둥벼락이 같은 처지로 신앙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보았던 주교님께서 이제는 망백의 연세로 하

느님 곁에 가셨고, 저 또한 망구를 앞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주교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보살피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교님께서 주님 대전으로 떠나시니,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주교님께서 늘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설날에 세배를 올리러 갈 때마다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두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그 천진하고 따뜻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내가 손을 꼽아 보더니 어 느덧 54년째 설 세배를 드리고 있다 하셨습니다.

연세를 생각하시어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자, 주교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쌀 때까지 쓰다가 하느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고맙게, 고맙게, 땃땃하게, 땃땃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교님,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한국인, 안동 사람으로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 곁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2025년 4월 10일

하느님 품에 안기신 두봉 주교님을 그리워하며
이진구 시몬 올림

사별가족모임 '새 봄'

대상: 사별 후 일상회복과 애도과정에 도움을 받고싶은 분
일시: 4. 17부터 매주 금요일 14:00~17:00(6주간)
장소: 안동 바오로 딸 서원 2층
문의: 054-858-3114~5(사목국)
010-2236-1057(최남주 수녀)

가족 교육 안내

대상: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부모 / 배우자)
일시: 3월~5월(12회) 주일 14:00~15:30
장소: 개별안내 / 인원 : 10명 이내
참가비: 15만원
문의: 054-858-3114~5(사목국) / 010-6563-5805



성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 현시 : 사별성당(4월 11일 ~ 4월 18일), 공검성당(4월 18일 ~ 5월 25일)

교구장 동정



- 4월 13일(월)
 - 사제연수(~15)
 - 사제평의회
- 4월 18일(토)
 - 마산교구 60주년 기념 미사
- 4월 19일(일)
 - 견진(문경)

교 구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기념 특별 희년 안내

기 간: 2026.01.10~2027.01.10
 순례지: 정상동성당(10:00~20:00)
 희년안내: 교구 홈페이지, 본당게시판
 문 의: 본당 신부님, 수녀님

교리교사학교

일 시: 4. 19(주일) 13:40~17:50
 장 소: 안동교구청
 준비물: 텀블러, 필기도구

2026년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대 상: 등록된 예비신학생
 일 시: 4. 26(주일) 09:00~17:00
 장 소: 대구 신학교

세계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및 문의: 본당 신부님, 수녀님

제 단 체

2026년 청년성서모임 발대 및 미사

대 상: 청년성서모임 가족, 교구 청년
 일 시: 4. 12(주일) 14:00
 장 소: 갈전 마티아 성당
 문 의: 010-4569-1514(대표 김아름 안나)

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 4월 기도회

일 시: 4. 26(주일) 16:00~18:30
 장 소: 상주지구 남성동성당
 지 향: 성령의 위로와 희망의 기도
 문 의: 010-2638-4798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위한 제95차 ME주말

일 정: 5. 15(금) 19:00~17(주일) 17:00
 장 소: 농은수련원
 대 상: 혼인 3년 이상 부부
 문 의: 010-4153-1229



수 도 회 · 피 정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4. 18(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 시: 5. 16(토) 11:00~17(일) 16:00
 대 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분들
 장 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 비: 9만원정 (사전접수자만 피정가능)
 문 의: 010-5490-5345

제주산들평화순례따라경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제주 순례: 5.15(금)~17(주일), 6.19(금)~21(주일), 7.3(금)~5(주일), 7.10(금)~12(주일), 7.17(금)~19(주일)
 우도: 7.24(금)~26(주일), 7.30(목)~8.2(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5.4(월)~6(수), 6.4(목)~7(주일), 6.8(월)~11(목), 9.4(금)~7(월), 9.11(금)~14(월)
 문 의(면형의 집): 064-732-4702

교 육

온라인마케팅실무과정 무료 교육

일 정: 4. 18(토), 25(토)
 시 간: 09:00~13:00 (총 2일 8시간)
 내 용: 생성형AI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및 쇼츠 영상 제작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입문용드론 조립·정비 & 방제용드론 조립·정비 무료 교육

일 정: 5. 17(일), 31(일), 6. 7(일)
 시 간: 09:00~17:30(총 3일 24시간, 중식 제공)
 내 용: <1>입문용드론 조립, 정비, 고장진단 <2>방제용드론 분해, 조립, 부품점검, 시험비행
 대 상: 드론 운용 유경험자인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기 타

가톨릭신문 창간 100주년 기념

<제5차 신자 신앙의식 조사>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상세안내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착즙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 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010-8962-9600

